

오픈채팅 인기 주제는... 10대 게임·40대 재테크

메조미디어, 연령별 설문...평균 2.7개 채팅방 참가 정보교류 목적 72%...응답자 32% "주 4회 이상 사용"

'게임, 공부, 직장, 재테크.' 10대부터 40대까지 각 연령대별로 오픈채팅 커뮤니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다. 최근 원하는 관심사로 소통할 수 있는 오픈채팅 커뮤니티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취미와 친목을 도모하거나 공부나 업무 등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많다.

지난 30일 CJ ENM의 통합 디지털 마케팅 기업 메조미디어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또는 네이버톡 이용 경험이 있는 15~49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참여하고 있는 오픈채팅 주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는 게임을 1순위로 꼽았다. 2위는 특정 주제가 없는 수다, 3위는 연예인, 4위는 공부·학업, 5위는 영화·드라마·예능 순이었다. 20대의 경우 공부·학업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어 여행, 게임, 재테크 순으로 응답했다. 3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오픈채팅방 주제는 직장·업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 2위로 집계됐으며 게임, 여행이 뒤를 이었다. 40대의 경우 1위 재테크, 2위 직장·업무, 3위

여행 순으로 파악됐다.

연령 통틀어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정보를 교류하기 위함'으로 72%를 차지했다. '취미와 관심사가 맞는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가 47%로 2위였으며 '특정한 목적 없이 재밌어서'(26%), '학교·직장·모임 등의 공지사항을 전달받기 위해서'(24%), '챌린지 등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14%)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평균 2.7개의 오픈채팅방에 참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용 빈도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37%로 가장 많았고, 주 4회 이상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32%를 차지했다. 주 2~3회는 24%, 2주일에 1~2회는 7%로 집계됐다.

오픈채팅방 주요 참가 경로는 '관심 있는 주제나 분야를 직접 검색해서'가 6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채팅방 목록을 둘러보다가 관심이 가서'(36%), '학교·직장·모임 등에서 참가하라고 해서'(34%)였다.

응답자들은 '다수의 참여자를 통해 다양한 정보 습득이 가능하다'(57%)는 점을 오픈채팅방의 장



디지털 마케팅 기업 메조미디어는 오픈채팅 이용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참가 주제와 목적 등을 조사했다. (메조미디어 제공)

점으로 꼽았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 습득 가능'(54%), '같은 취미·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점'(40%),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38%),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탈퇴 사유로는 '더 이상 유용한 정보가 없어서'가 47%를 차지했다. 이어 32%의 참여자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29%는 '재미가 없어져서'라고 답했다. 채팅에 참여한 목

적을 달성해서'(26%),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22%) 등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오픈채팅 속 광고 경험에 대한 비율도 확인했다. 49%의 응답자가 오픈채팅을 이용하며 광고를 본 적 있다고 답했다. 그 중 21%가 광고를 클릭한 적이 있었고, 클릭 전환율은 43%였다.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7%, 구매 전환율은 37%로 나타났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쏟아 IT 정보

티빙 연간 구독권 20% 인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은 다음 달 1일부터 연간 구독권 가격을 기존 대비 약 20% 올린다고 공시했다.

이번 인상은 신규 가입 시에만 해당하며, 기존에 연간 구독권을 써온 회원은 그동안의 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

티빙은 새로운 요금제 정책에 따라 기존 9만4천800원이던 베이직 구독권(이하 연간)은 11만4000원, 기존 13만800원이던 스탠다드는 16만2000원, 기존 16만6800원이던 프리미엄은 20만4000원으로 올린다.

다만 신규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이상 연간 구독권 가격을 27% 할인하는 이벤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LGU+, 구독결합 '유독 픽2' 개시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독 서비스를 모아 높은 할인율을 주는 '유독 픽'의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유독 픽 시즌 2에서 유튜브 프리미엄과 디즈니 플러스, 지니뮤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와 파리바게뜨, 던킨, 요기요 등 라이프 쿠폰 15종을 각각 하나씩 골라 최대 63%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월 1만3900원, 디즈니 플러스는 월 9900원, 지니뮤직은 월 8400원이며, LG유플러스 멤버십 VVIP·VIP 등급 고객에게는 4천원을 추가로 할인한다.

아울러 구독 플랫폼 '유독'에 구독 상품을 추가로 선보이고,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익시'를 활용해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우체국쇼핑, 가정의 달 선물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부모와 자녀를 위한 선물과 전국 팔도 우수 특산물 등 1만여 개 상품을 최대 40% 할인하는 '우체국쇼핑, 가정의 달 선물전'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식품, 헬스케어 상품 등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이 공급하는 우수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할인전이라고 우정사업본부는 전했다.

이번 행사는 테마기획전, 맞춤 상품전, 선물하기 베스트관 등의 기획전으로 진행된다. 테마기획전에서는 행복·건강·꽃·안심 등 4개 키워드로 가정의 달 맞춤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맞춤 상품전은 생생·연령별 인기 상품을 마련하며, 선물하기 베스트관은 작년 매출 상위 상품을 모아놓는다.

우체국쇼핑은 행사 기간 중 모든 구매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소셜미디어 댓글 작성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국 우체국과 우체국쇼핑몰(mall.epost.kr), 우편고객센터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가장 비싼 나라 '한국' 2029년까지 1위 유지 전망

한국이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 나라 1위를 계속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드에 따르면 조사 대상 88개국 중 올해 스마트폰 평균 판매단가(ASP)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 일본, 영국의 순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일본을 제친 이후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가 가장 높은 나라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테크인사이드는 오는 2029년까지 글로벌 스마트폰 매출과 ASP 전망에 대해 조사한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조사 기간 내내 스마트폰 ASP가 가장 높은 국가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의 고가 폴더블 모델이 확산하고 아이폰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 국내 스마트폰 ASP 상승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업체는 분석했다.

반면 일본은 소니의 고가폰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최근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가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테크인사이드는 지적했다.

영국은 아이폰 판매 증가세 등으로 인해 올해 미국을 추월해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가 3위 국가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2~3년 안에 미국에 재역전 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테크인사이드는 한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7개국에서 올해 스마트폰 ASP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키즈매직쇼부터 사이언스마켓까지...과학관은 어린이세상

국립광주과학관 4~6일 특별행사 비행기 조립 등 프로그램 8종 운영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2024 어린이날 특별행사-과학관 어린이세상'을 개최한다.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어린이날 특별행사는 과학관 전역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이벤트 등 8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먼저 4일에는 오후 2시부터 2시 50분까지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키즈매직쇼' 공연 프로그램이 과학관 상상홀에서 펼쳐진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캐리커처 체험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어린이과학관 도란도란실에서 만날 수 있다.

이어 5일은 '명작동화 인형극'이 펼쳐져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과학관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체험도 마련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6일은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구연동화'가 찾아오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또 본관 정문 필로티에서 '딱지 전사! 지구를 지켜줘'라는 주제로 동화를 듣고 부모님과 함께 딱지접기, 딱지 멀리 던지기,



지난해 어린이날 특별행사에서 관람객들이 미라클매직쇼를 즐기고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딱지 팽이 돌리기 등 '색동화' 재능기부 전래놀이 체험해 볼 수 있다.

행사 기간 3일 동안 어린이과학관 우주배움마루에서 비행기 본체와 날개를 조립해 야외에서 직접 날려보는 어린이날 특별교육 '날아라, 비행기! 날아라, 나의 꿈!'도 진행된다.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4시에 4회에 걸쳐 열린다.

마지막으로 특별이벤트도 만나볼 수 있다. 매일 3회에 걸쳐 1시간씩 선착순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온 가족 즉석사진 촬영이 진행된다.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관 공룡동산과 빛고을탑 앞, 오

후 1시 30분에 어린이과학관 무한상상의탑, 3시 30분에는 인공지능관 인공지능터널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알뜰 나눔장터인 '사이언스 플라마켓'이 6일 열린 예정이다.

4월 과학의 날에 이어 특별행사가 진행되는 3일 동안에도 상설전시관, 어린이과학관, 인공지능관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국립광주과학관 어린이날 특별행사 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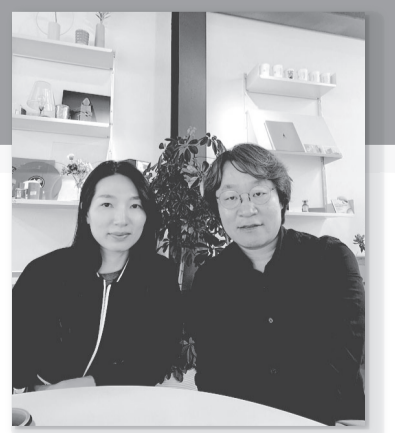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